

연구논문

생태축제의 생태친화적 효과에 관한 비교 연구: 함평나비축제와 무주반딧불축제를 사례로

송 명 규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2011년 12월 9일 접수, 2012년 1월 26일 승인)

A Comparative Study on the Ecology-Friendly Effects of Eco-Festivals: A Case Study of Ham-Pyung Butterfly Festival and Mu-Ju Firefly Festival

Myung-Gyu Song

Professor, School of Urban Planning and Real Estate Studies, Dankook University
(Manuscript received 9 December 2011; accepted 26 January 2012)

Abstract

This study makes an attempt to appraise how much successful both (Ham-Pyung) Butterfly Festival and (Mu-Ju) Firefly Festival are in the view point of ecology-friendly effects, and based on this appraisal, searches for desirable and developmental directions of other eco-festivals.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study shows that even if the Butterfly Festival turns out to be more famous than the Firefly Festival, the latter is confirmed to be more eco-friendly than the former.

The fact that the latter is more eco-friendly seems to be due to the fact that the subject matter, that is the theme, of the festival is the fireflies which are not only natural monuments but also peculiar in-site-resources specific to Mu-Ju. This fact suggests that the other eco-festivals, newly emerging ones in particular, need to find and designate in-site-resources inherent in their regions as the theme, as far as possible.

Keywords : eco-festival, Ham-Pyung Butterfly Festival, Mu-Ju Firefly Festival, ecology-friendly effects, in site resource.

1. 서론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그 차별화가 축제 자체는 물론 지역의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축제도 과거의 종합적 성격에서 자신만의 색깔과 특징을 강조하는 테마축제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이런 총체적인 변화 속에서 '지속가능성'이 시대적 화두로 대두되고 생태관광이 새로운 관광 형태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생태축제'가 점차 많은 탐방객을 유인하고 있다.

생태축제는 일반적인 축제의 목적에 더하여 '생태친화성', 즉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의 발굴과 증식, 지역생태계의 보존, 그리고 환경 및 생태교육의 전파라는 특수한 목적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축제인 함평나비축제와 무주반딧불축제를 대상으로 두 축제가 이런 목표에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방문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여타 생태축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생태친화적 효과'란 특정 축제가 방문객들에게 생태 현상에 대한 이해와 경외감, 그리고 그 보존의 중요성을 얼마나 고취시키는지를 의미한다.

연구의 방법은 동일한 질문에 대한 독립표본 t-검정이며, 가설검정의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2010년과 2011년 두 해에 걸쳐 함평나비축제와 무주반딧불축제를 탐방하여 축제기간 동안 현장에서 각각 200명씩, 총 800명의 방문객을 인터뷰하였다.

II. 생태축제의 개념과 선행연구 검토

1. 생태축제의 개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산업의 발굴과 장려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매년 지역축제를 몇 가지로 유형화하기 시작했는데,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2008, 4-6, 56)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축제 분류체계를 수용하여 지역축제를 그 소재에 따라 전통/역사/민속축제, 문화/예술축제, 지역특산물축제, 경연/산업/스포츠축제, 그리고 생태/자연축제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생태축제는 생태/자연축제의 하나이지만 일반적인 자연축제가 생물, 무생물, 그 서식처, 자연생태계, 자연의 풍광, 계절적 특징 등 자연 현상 전반을 소재로 하는 모든 축제를 포괄하지만 생태축제는 그 중에서도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 그리고 자연생태계를 주된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생태/자연축제의 하위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생태/자연축제는 통상 '환경축제'로 불리기도 하는데, 환경축제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박미수(2007)는 놀이와 재미를 통해 자연스럽고 흥미롭게 방문객들을 교육시킴으로써 그들에게 자연보호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축제로, 성선경(2009, 13)은 지역의 자연 환경이나 생태, 친환경 농산물과 특산물 등을 소재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강화하며, 축제 참여자들로 하여금 자연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직접 느끼게 하며,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이해·감상·학습하고 재발견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축제로 규정한 바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지역축제에 관한 연구는 매우 많지만 생태축제의 생태(환경)친화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희소한 편인데,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강환·노용호(2003)는 무주반딧불축제를 대상으로 생태관광과 이벤트라는 두 가지 목표의 성과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평가하고 이에 근거하여 생태관광축제의 목표인 환경보존, 관광, 지역개발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연구 결과, 무주반딧불축제는 환경교육 효과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박미숙·이훈(2004)은 무주반딧불축제를 사례로 한 '생태자연축제 평가항목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에서 관광·축제·생태환경 관련 전문가와 축제

표 1. 함평나비축제 및 무주반딧불축제의 최근 6년간 등급

축제명	개최시기	2011년 예산 (억원)	2011년 회차	2006년 등급	2007년 등급	2008년 등급	2009년 등급	2010년 등급	2011년 등급
무주 반딧불축제	6월	9.01	15회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우수
함평 나비대축제	4/5월	8.00	13회	우수	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최우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06-2011), 『(각년도)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델파이기법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생태자연축제의 평가항목을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태자연축제의 경우, 6가지의 평가항목 중 환경관련항목(환경보존의 교육과 실천, 생태체험 프로그램 등)이 총점 100점 중 과반수인 51점을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선경(2009)은 무주반딧불축제, 함평나비축제, 푸른청원생명축제 등 세 가지 생태축제를 답사하고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생태교육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축제에 대해 조사하고 체험하는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지역의 자연환경을 이해하고 인식하게 된다. 둘째, 축제를 통한 현장체험 학습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높은 흥미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셋째, 학습자들은 축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자연 환경에 대해 친화감과 친화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 요컨대 지역 환경축제는 훌륭한 환경교육 교재로서, 커다란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3. 본 연구의 차별성

지역축제,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무주반딧불축제와 함평나비축제에 대한 연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지금까지의 연구와 다르다.

첫째, 본 연구는 두 축제의 방문자 집단에 대해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그 차이를 비교분석한다는 점에서 보통 하나의 축제에 초점을 둔 여타 연구와 다르다. 둘째, 본 연구는 동일한 설문조사를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는 점에서 통상 1회의 조사에 그친 여타 연구와 다르다. 동일한 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한 것은 해를 달리 하면서

방문객들의 태도와 평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함과 동시에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함이기도 하다. 셋째, 본 연구는 두 축제의 차이와 그것이 방문객의 인식과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초점이 있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발견하려 한 여타 연구와 다르다.

III. 함평나비축제 및 무주반딧불축제 개요

무주반딧불축제(이하 '반딧불축제', '무주', 혹은 '축제M'으로 약칭)와 함평나비(대)축제(이하 '나비축제', '함평', 혹은 '축제D'로 약칭)는 유사한 점이 매우 많다. 우선 개최지가 호남의 농업지역이며, 축제의 역사도 15년과 13년으로 유사하다. 2010년의 예산 규모도 9억 원과 8억 원으로 유사하며, 개최 시기도 6월과 4/5월로서 초여름과 늦봄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유사점은 둘 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태축제이며, 그 소재가 각기 반딧불과 나비라는 곤충이라는 점이다.

다만 축제 등급과 소재의 고유성에서는 차이가 있는데, 반딧불축제가 비록 역사가 2년 앞서고 나비축제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기는 하나 최근 6년 간의 문화관광축제 등급은 나비축제가 상대적으로 앞서며(표 1 참조 바람), 무주의 반딧불은 그 자체와 서식지가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¹⁾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 고유성을 지니고 있는 반면 나비는 대도시를 제외하면 전국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라는 점이 다르다. 또한 축제 내용 면에서도 반딧불축제는 반딧불

1) 정부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반딧불이 서식하고 있는 무주 설천면 일원의 반딧불과 그 먹이(다슬기) 서식지를 1982년에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반딧불 축제의 '반딧불탐사 프로그램'은 야간에 이 서식지에서 이루어진다.

표 2. 설문지의 구조와 질문 내용

항목	함평나비축제 방문자에 대한 질문	무주반딧불축제 방문자에 대한 질문
축제의 지명도	“함평” 하면 나비와 나비축제가 가장 먼저 생각한다.	“무주” 하면 반딧불과 반딧불축제가 가장 먼저 생각한다.
	“나비” 하면 함평과 나비축제가 가장 먼저 생각한다.	“반딧불” 하면 무주와 반딧불축제가 가장 먼저 생각한다.
	나비축제는 자랑할 만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축제이다.	반딧불축제는 자랑할 만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축제이다.
축제 소재의 고유성	나비는 함평의 고유한 생태자원이다.	반딧불은 무주의 고유한 생태자원이다.
	축제에서 본 나비는 함평만의 자랑이다.	축제에서 본 반딧불은 무주만의 자랑이다.
	축제에서 본 나비는 다른 곳의 나비와 다르다.	축제에서 본 반딧불은 다른 곳의 반딧불과 다르다.
축제의 생태친화적 효과	축제에서 본 나비는 신비로웠다.	축제에서 본 반딧불은 신비로웠다.
	나비축제는 생태교육효과가 크다.	반딧불축제는 생태교육효과가 크다.
	나비축제를 통해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반딧불축제를 통해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표 3. 연도별, 축제별 표본의 크기

2010년도	함평	무주	소계	2010년도	함평	무주	소계	총계
총 피조사자(명)	200	200	400	총 피조사자(명)	200	200	400	800
유효표본(명)	174	184	358	유효표본(명)	199	155	354	712

방사, 반딧불 야간 관람 등 생태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반면 나비축제는 나비채집 체험을 제외하면 대부분 전시, 공연, 제작, 유희 등 일반적인 종합 축제의 면모를 띠고 있다는 점도 다르다. 본 연구는 유사점보다는 이런 차이점에 주목하여 그로 인한 축제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방문객 집단 사이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IV. 생태축제의 생태친화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1. 조사 설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일반사항 외에 축제의 지명도에 대한 인식, 소재의 고유성(지역성)에 대한 인식, 축제의 생태친화적 효과에 대한 인식 등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은 모두 세 가지의 구체적인 질문으로 나뉘는데,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은 ① 매우 그렇다(5점), ② 그렇다(4점), ③ 보통이다(3점), ④ 아니다(2점), ⑤ 전혀 아니다(1점) 등 5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표 2는 설문지의 구조와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보여준다.

설문은 매 축제 기간에 3일간씩 각기 무작위로

선정된 방문객 200명에 대해 자기식으로 실시되었으며, 따라서 전체 피조사자는 800명이다. 이 중 나비축제는 관람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는 방문객을, 반딧불축제는 반딧불 야간 탐사를 마치고 축제장으로 돌아오는 셔틀버스에 탑승한 방문객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분석은 응답지 중 신뢰성이 높은 것만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표 3은 연도별, 축제별 전체표본과 분석에 투입된 유효표본의 크기를 보여준다.

2. 연구가설

본 연구는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구가설을 검정하려 한다.

가설1: 축제 지명도에 대한 인식은 축제H가 축제M보다 높을 것이다(대립가설).
축제 지명도에 대한 인식은 축제H가 축제M보다 낮거나 같을 것이다(귀무가설).

가설1은 축제H가 축제M에 비해 최근 4년간 더 높은 등급의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가설2: 축제의 생태친화적 효과에 대한 인식은 축제M이 축제H보다 높을 것이다(대립가설).
축제의 생태친화적 효과에 대한 인식은 축제M이 축제H보다 낮거나 같을 것이다(귀무가설).

표 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년도	성별(%)			연령(세)		최종학력(%)						
	남	여	전체	평균	표준편차	무학	초교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이상	전체
2010년	45.2	54.8	100.0	36.18	10.59	1.2	.6	3.5	25.4	63.0	6.4	100.0
2011년	45.6	54.4	100.0	35.27	8.92	.0	.6	1.7	23.1	60.8	13.8	100.0

표 5. 축제 지명도에 대한 인식

질문항목: 축제 지명도	축제	2010년				2011년			
		N	평균	표준편차	α^*	N	평균	표준편차	α^*
질문 1 “함평(무주)”하면 나비(반딧불)와 나비(반딧불)축제가 가장 먼저 생각한다.	함평	174	4.4023	.75967	.912	199	4.4774	.70942	.789
	무주	184	3.4565	1.03926		155	3.5484	1.13500	
질문 2 “나비(반딧불)”하면 함평(무주)과 나비(반딧불)축제가 가장 먼저 생각한다.	함평	174	4.1092	.88965	.908	199	4.1005	.95872	.776
	무주	184	3.6359	1.07277		155	3.8129	1.13267	
질문 3 나비(반딧불)축제는 자랑할만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축제이다.	함평	174	4.1724	.80758	.899	199	4.1206	.82605	.771
	무주	184	3.7935	.92963		155	3.9806	.88619	

* 항목을 제거했을 때의 Cronbach 알파 값(이하 동일).

가설2는 본 연구의 중심가설로서, 가설1에도 불구하고 축제H의 소재는 전국 어디서나 발견되는 나비인 반면 축제M의 소재인 야생 반딧불은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된 서식지에서 기상이 좋은 야간에 만 관찰할 수 있는 희소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생태를 직접 보고 느낀 후의 인상과 감흥, 그리고 그로 인한 생태교육적 효과는 나비의 경우보다 더 깊을 것이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나비에 비해 반딧불이는 뚜렷한 현장자원²⁾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3이 성립한다.

가설3: 축제 소재의 고유성에 대한 인식은 축제M이 축제H보다 높을 것이다(대립가설).

축제 소재의 고유성에 대한 인식은 축제M이 축제H보다 낮거나 같을 것이다(귀무가설).

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과 조사의 신뢰도

표 4는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준다.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별 분포는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큰 차이는 없으나, 다만 2011년 응답자의 학력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는 여성이 약간 많고 30대 중반의 대졸자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두 축제가 생태축제인 만큼 자녀를 동반하고 현장학습을 위해 참여하게 된 젊은 부모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Cronbach 알파 값으로 측정된 조사의 신뢰도는 2010년에 0.909, 2011년에 0.793으로 두 조사 모두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는 2011년이 2010년에 비해 낮았는데, 이는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앞의 조사 설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반딧불축제는 반딧불 야간 탐사를 마치고 축제장으로 돌아오는 셔틀버스에 탑승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했으며 대체로 매우 늦은 시각에 조사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그날의 날씨에 따라 조사여건과 탐방객들의 상태가 매우 달라지는데, 2011년 조사기간에는 일기가 순조롭지 않았다.³⁾

4. 가설검정

1) 가설1의 검정

표 5은 년도별, 축제별 축제 지명도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이 세 가지 질문 모두에서 두 축제 공히 ‘보통이다(3점)’를 훨씬 넘어선 ‘그렇다(4점)’에 가깝거나 그것을 초과하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두 축제를 비교해보면 2년 연속

2) 그것이 소재한 현장에 가야만 즐길 수 있는 자원으로서, 자연 상태로 존재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각종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주는 자원(Krutilla and Fisher, 1975).

3) 나비축제도 2011년에는 일기가 좋지 않았다.

표 6. 축제 지명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설1)의 t-검정

질문	등분산 성립 여부	2010년						2011년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평균차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평균차
질문 1	등분산 가정함	22.152	.000	9.784	356	.000	.9457	57.212	.000	9.424	352	.000	.9290
	등분산 가정않음			9.868	335.0	.000				8.923	244.3	.000	
질문 2	등분산 가정함	13.260	.000	4.530	356	.000	.4733	5.710	.017	2.585	352	.010	.2876
	등분산 가정않음			4.554	350.0	.000				2.533	300.9	.012	
질문 3	등분산 가정함	4.044	.045	4.107	356	.000	.3789	.010	.919	1.532	352	.126	.1399
	등분산 가정않음			4.123	353.4	.000				1.518	319.2	.130	

표 7. 축제의 생태친화적 효과에 대한 인식

질문항목: 축제의 생태친화적 효과		축 제	2010년				2011년			
			N	평균	표준편차	α	N	평균	표준편차	α
질문 4	축제에서 본 나비(반딧불)는 신비로웠다.	함평	174	3.4540	.98289	.906	199	3.3869	.97754	.776
		무주	184	4.0652	.80713		155	4.1484	.85882	
질문 5	나비(반딧불)축제는 생태교육 효과가 크다.	함평	174	4.0115	.83968	.904	199	4.0201	.80378	.779
		무주	184	4.0870	.78444		155	4.2194	.74964	
질문 6	나비(반딧불)축제를 통해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함평	174	3.7126	.94848	.904	199	3.6281	.88900	.778
		무주	184	4.1141	.79136		155	4.3161	.76239	

함평이 무주에 비해 더 높은 지명도를 누리고 있다. 다만 함평의 지명도가 2개 년도에 걸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무주의 지명도는 3개 질문 모두에서 약간의 개선이 있었음이 주목된다.

표 6는 가설1, 즉 축제 지명도에 대한 인식 차이의 t-검정 결과를 년도별, 질문별로 보여준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보면 유의수준 0.05에서 2011년의 질문 3을 제외하면 함평과 무주의 응답 분산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등분산이 가정되든 아니든 유의수준 0.05에서 t-검정 결과는 동일하다. 즉, 축제 지명도에 관한 질문 1과 질문 2에서 2010년과 2011년 공히 함평이 무주보다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질문 3의 경우는 2010년에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으나 2011년에는 그렇지 않다. 즉, 2011년에는 자랑할 만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축제로서 함평나비축제와 무주반딧불축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지명도에서는 대립가설대로 여전히 함평이 무주에 앞선다고 볼 수 있다.

2) 가설2의 검정

표 7은 년도별, 축제별 생태친화적 효과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표에 나타나 있듯이 세 가지 질문 모두에서 두 축제 공히 '보통이다(3점)'를 훨씬 넘어선 '그렇다(4점)'에 가까워지거나 그것을 초과하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두 축제를 비교해보면 2년 연속 무주가 함평에 비해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주는 세 질문 모두에서 4점 이상을 받고 있으며, 특히 질문 4와 질문 6에서 함평을 크게 앞지르는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그 평가가 2010년보다 2011년에 더욱 개선되었음도 특기할 만하다. 반면 함평은 전체 질문에 걸쳐 평가가 다소나마 낮아졌거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질문에 걸쳐 2011년에는 2010년에 비해 무주와 함평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표 8는 가설2, 즉 축제의 생태친화적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의 t-검정 결과를 년도별, 질문별로 보여준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보면 유의수준 0.05에서 2010년의 질문 4, 그리고 2010년과 2011

표 8. 축제의 생태친화적 효과에 대한 인식 차이(가설2)의 t-검정

질문	등분산 성립 여부	2010년						2011년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평균차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평균차
질문 4	등분산 가정함	11.71	.001	-6.445	356	.000	-.611	2.619	.106	-7.664	352	.000	-.761
	등분산 가정않음			-6.410	335.1	.000				-7.788	346.8	.000	
질문 5	등분산 가정함	.73	.393	-.879	356	.380	-.075	.668	.414	-2.383	352	.018	-.199
	등분산 가정않음			-.877	350.6	.381				-2.404	340.7	.017	
질문 6	등분산 가정함	12.09	.001	-4.358	356	.000	-.401	5.625	.018	-7.682	352	.000	-.687
	등분산 가정않음			-4.336	337.4	.000				-7.830	348.7	.000	

표 9. 축제 소재의 고유성에 대한 인식

질문항목: 축제 소재의 고유성		축 제	2010년				2011년			
			N	평균	표준편차	α	N	평균	표준편차	α
질문 7	나비(반딧불)는 함평(무주)의 고유한 생태자원이다.	함평	174	3.5805	.92609	.903	199	3.5980	2.38031	.805
		무주	184	3.7337	.96934		155	3.8387	1.03500	
질문 8	축제에서 본 나비(반딧불)는 함평(무주)만의 자랑이다.	함평	174	3.7874	1.02323	.900	199	3.7387	.97549	.769
		무주	184	3.7011	.94250		155	3.7677	.88140	
질문 9	축제에서 본 나비(반딧불)는 다른 곳의 나비(반딧불)와 다르다.	함평	174	3.3161	1.03022	.903	199	3.1508	.91970	.773
		무주	184	3.3424	.87287		155	3.5161	.95588	

년의 질문 6의 경우는 함평과 무주의 응답 분산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등분산이 가정되든 아니든 유의수준 0.05에서 t-검정 결과는 동일하다. 즉, 2010년의 경우 축제의 생태친화적 효과에 관한 모든 질문에서 무주는 함평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그 차이는 질문 4와 질문 6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질문 5는 유의하지 않다. 그러나 2011년의 경우는 모든 질문에서 무주가 함평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대단히 유의하다. 이로써 축제의 생태친화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으로 보아 무주가 함평에 뚜렷이 앞선다고 말할 수 있다.

3) 가설3의 검정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축제 소재의 고유성에 대한 인식은 축제의 생태친화적 효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볼 수 있다. 축제의 생태친화적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 무주가 함평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무주의 프로그램이 더 생태친화적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겠지만 소재

자체가 무주에 고유한, 즉 무주에서만 볼 수 있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표 9은 년도별, 축제별 소재의 고유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표에 나타나 있듯이 질문 7과 질문 8에서 두 축제 공히 3.58에서 3.84에 이르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두 축제를 비교해보면 질문 7에서는 2년 연속 무주가 함평에 비해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 격차가 더욱 벌어졌고, 질문 8에서는 2010년에는 함평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2011년에는 사정이 역전되어 무주가 더 높은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함평은 2011년에 평가가 더 떨어졌으나 무주는 향상되었다. 질문 9에서는 두 년도의 평가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함평은 상당히 퇴조하였으나 무주는 크게 개선되어 2010년에는 두 축제 간에 점수 차이가 거의 없었던 것이 2011년에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함평은 모든 질문에서 점수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감소했음에 반해 무주는 모든 질문에서 다소간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

표 10. 축제 소재의 고유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설3)의 t-검정

질문	등분산 성립 여부	2010년						2011년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평균차	F	유의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평균차
질문 7	등분산 가정함	.035	.852	-1.528	356	.127	-.153	.733	.392	-1.175	352	.241	-.240
	등분산 가정않음			-1.530	355.9	.127				-1.280	284.2	.202	
질문 8	등분산 가정함	1.754	.186	.830	356	.407	.0862	2.999	.084	-.290	352	.772	-.029
	등분산 가정않음			.828	349.3	.408				-.294	344.2	.769	
질문 9	등분산 가정함	3.117	.078	-.261	356	.794	-.026	4.156	.042	-3.645	352	.000	-.365
	등분산 가정않음			-.260	339.6	.795				-3.627	324.8	.000	

표 10는 축제 소재의 고유성에 대한 인식 차이의 t-검정 결과를 년도별, 질문별로 보여준다. Levene의 등분산 검정을 보면 유의수준 0.05에서 2011년의 질문 9를 제외하면 합평과 무주의 응답 분산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등분산이 가정되든 아니든 유의수준 0.05에서 t-검정 결과는 동일하다.

표를 보면, 2010년의 질문 8을 제외하면 모든 경우에 무주가 합평보다 점수가 높다. 그러나 그 차이는 2011년의 질문 9를 제외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질문 9의 경우는 2010년에는 두 축제 간 점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2011년에는 대단히 유의하게 무주가 앞선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말하면 축제 소재의 고유성에 대한 인식은 무주가 합평에 비해 앞서거나 앞서게 된 경향이 있지만 ‘축제에서 본 소재(나비와 반딧불)는 다른 곳의 소재와 다르다.’는 질문을 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V. 결론: 연구 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를 실증부문에 초점을 두어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합평나비축제와 무주반딧불축제는 방문객들로부터 축제의 지명도, 소재의 고유성, 생태친화적 효과 등 세 가지 항목 모두에서 ‘보통이다(3점)’를 넘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특히 지명도와 생태친화적 효과에서는 매우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둘째, 합평은 대부분의 항목과 질문에서 2010년

과 2011년의 평가가 유사하거나 근소하게 하락했음에 반해 무주는 모든 항목과 질문에서 평가가 향상되어 나비축제를 앞지르거나 격차를 줄였다.

셋째, 축제의 지명도는 연구가설대로 전체적으로 보아 합평이 무주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앞섰다. 다만 ‘자랑할 만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방축제’로서 합평과 무주에 대한 평가는 2011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넷째, 축제의 생태친화적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연구가설대로 전체적으로 보아 무주가 합평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앞섰다.

다섯째, 축제 소재의 고유성에 대한 인식은 무주가 합평에 비해 앞서거나 앞서게 되었지만 ‘축제에서 본 소재(나비와 반딧불)는 다른 곳의 소재와 다르다.’는 질문을 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합평나비축제와 무주반딧불축제를 대상으로 이들이 생태친화성 면에서 상대적으로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여타 생태축제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분석 결과 축제의 지명도는 합평이 높으나 생태친화적 효과는 무주가 뚜렷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가 생태친화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소재 자체가 무주에 고유한, 즉 무주만의 ‘현장자원’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비록 전체적인 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축제 소재의 고유성에 대한 인식이 무주가 합평에 비해 앞서거나 앞서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시사한다.

무주가 생태친화적 효과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특히 새롭게 탄생하게 될 생태축제의 발전 방향에서 다음을 시사한다.

첫째, 축제의 소재를 가능한 한 지역고유의 것으로, 즉 지역 특유의 현장자원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소재의 고유성은 여타 축제와 자신을 차별화하여 방문객을 유인하고 지역의 이미지와 장소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크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지역 고유 생태계의 보존, 고유종의 발굴과 증식, 그리고 그 서식지의 보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둘째, 축제 프로그램을 생태자원의 현장 탐방과 관찰이라는 체험형 중심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체험'은 축제 방문자가 능동적인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만 가능한 활동이므로 이를 통해 방문자는 축제 자체와 그 소재, 그리고 지역의 자연 환경에 대해 매우 깊고 강한 인상과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셋째, 주최 측은 축제의 소재가 되는 생태자원과 그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이를 사회 일반과 방문객들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방문객들에게 생태축제의 의미와 생태보존의 중요성을 더욱 일깨우고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생태계의 보존에 실제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무주반딧불축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두루 갖춘 모범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반딧불은 무주 고유의 현장자원이며, 반딧불축제는 현장 탐사와 체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무주군은 반딧불 전시·학습실과 사육실을 갖춘 반딧불연구소를 상설·운영함으로써 그 생태를 탐구하고 종(種)과 서식지를 보존하며 청소년들에게 반딧불의 관찰과 체험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사 사

이 연구는 2010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참고문헌

- 문화체육관광부, 2008, 지역축제 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각년도)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박미수, 2007, 생태축제 브랜드와 축제이미지 일치성에 관한 연구: 무주반딧불축제를 사례로, 관광경영학연구, 11(3), 27-44.
- 박미숙·이훈, 2004, 생태자연축제 평가항목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 전문가와 방문객조사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8(2), 271-289.
- 성선경, 2009, 환경축제의 교재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강환·노용호, 2003, 생태관광형축제 평가 연구: 무주반딧불이 축제 사례,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지, 6(4), 103-112.
- Krutilla J. V. and A. C. Fisher, 1975, The Economics of Natural Environment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